

# 지역사회봉사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관련 변인 연구

충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손병덕 교수(사회복지/상담 5-2)

## I. 서론

신약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함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가 설립됨과 동시에 이웃사랑의 실천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가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인정했기에 서로 나뉘주기를 즐거하였고 따라서 그곳에는 물질로 인한 다툼이 드러나지 않았다(행 2:44-47). 가난한 이웃을 돕는 사역은 사도들의 다양한 선교사역에서도 드러나며(막12:31-33; 롬15:26; 고후9:13; 뱀전4:9; 히10:24), 믿음과 이웃사랑이 일치되는 신앙생활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은 칭송의 대상이 되었다(행2:47).

칼빈은 성경이 제시한 사역자들 중 감독과 장로의 주요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며, 집사직의 성격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로 규정(Calvin, 기독교강요 III, 제4장, 5: 82)하였으며 교회 수입의 4가지 주요 용도는 성직자, 가난한자, 교회 건물수리, 그리고 국내외 가난한자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Calvin, 기독교강요 III, 제4장, 7: 84)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헌금을 아무리 필요한 때가 있어도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 우선시되어야(Calvin, 기독교강요 III, 제4장, 8: 85) 함을 강조하였다. 교회의 화려함이나 치장을 책망하였으며 교회 교부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교회 성물들을 팔아서까지 도운 예를 언급하면서 교회가 가진 모든 것은 불쌍한 자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선언하였다(Calvin, 기독교강요 III, 제4장, 9: 86).

개혁주의 전통 안에 있는 한국교회는 복음전파와 함께 이웃사랑의 실천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사회에 있는 대 다수의 교회들은 교회의 형편을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웃을 섬기는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장학사업·생필품 전달·무료진료와 같은 단회성 구호로부터 교회 내 복지·문화·노인 프로그램의 운영과 같이 지속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설립과 사회복지기관 위탁운영과 같은 전문 사회복지 실천이 그것이다. 이처럼 교회차원에서 이웃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나 교회를 향한 지역사회의 신뢰도는 좀 채로 개선되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김병연, 2009). 사회는 교회를 향하여 지역사회에서 제 몫을 담당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하며, 종교기관들 중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평가를 실제 하고 있는 외형에 비하여 낮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 이유를 실제 교회 구성원들 중 타 종교에 비하여 얼마가 지속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정투입의 정도를 공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전문사회봉사 영역에서 기독교 기관의 외형에 비하여 실제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고려해 볼 때 어느 정도 교회에 대한 사회의 비판근거를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8년 자원봉사 통계자료에 의하면 기독교인의 연평균 자원봉사 시간이 천주교, 불교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사회복지시설의 법인 재정지원 현황에서도 기독교가 운영하는 많은 시설 수에 비하여 투입하는 법인재정 비율이 천주교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조사된다(고경환, 2006)는 사실은 사회의 비판이 근거 없는 것이라고 치부하기 어렵고 지속적이고 신뢰성 있는 사회봉사는 교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신약교회로부터 이어지는 이웃사랑의 아름다운 전통을 공고히 하여 지역사회와 건강한 소통의 장을 여는데 기여한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본 연구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가진다.

첫째, 신앙인들의 인구사회학적 변인들과 교회관련 활동의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신앙인들의 인구사회학적 변인들과 교회관련 활동의 특성이 지역사회봉사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II. 선행연구

예배와 신앙인의 삶: 이웃에 대한 사랑에 관한 중세의 신학사상은 물질적 가난의 복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공로구원론에 기초하여 자선을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고 심지어 자선적 활동에 의하여 믿음이 생긴다거나 가난 자체가 덕이라고까지 하였다(Lindberg, 1996). 절대 빈곤계층이 87%에 달하고 1/3의 국민이 영양실조에 걸리는 상황을 돌보기는커녕 실제 가난하지 않으면서 구걸하는 행위까지 하면서 영성을 회복하려는 정도로(Ozment, 1980) 성경의 가르침이 훼손되고 있을 때 칼빈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Calvin, 제1권, 2), 루터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신앙인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고, 예배는 곧 삶에서의 실천 이웃을 위한 사랑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하였다(Strohm, 1989). 예배는 찬송, 기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가 되며 이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돌보며,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복음의 대주제들이 경험되어지고 실제의 삶에서도 실천적으로 드러나야 할 것이다. 칼빈은 제네바에 복지기관을 세워 빈민, 환자, 고아, 과부를 돌아보며 직업훈련과 공교육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되며(Olson, 1989), 루터는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방편으로 공동금고(Common Chest)를 설치하여 구호기금으로 사용하고, 노동자와 빈곤계층 소상인들을 위한 대출과 학자금을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Luther, 45: 191). 칼빈과 루터는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을 위로하고,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을 돌볼 것을 도전하였으며, 이웃사랑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여 신앙인들이 받은 은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실현의 장을 구체적으로 만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종교개혁

자들이 구속의 은혜를 값없이 체험한 후 예배를 통하여 받는 지속적인 은혜를 실현하려 하고 구체적인 실천의 장을 만들려 노력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구원받은 은혜를 복음의 증거와 지역사회에 이웃사랑을 실현함으로 드러내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경건생활과 신앙인의 삶: 개인적인 성경읽기와 기도생활로 자주 이해되는 경건생활은 사실 드러나는 행위에 앞서 철저하게 성경에 기반을 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자신의 전적인 부패와 무가치함,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 맡길 수밖에 없는 통렬한 인식을 의미한다(Calvin, 제1권, 1). 경건에 대한 칼빈의 개념은 기독교 강요 헌정사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기독교 강요’를 서술하는 자체가 신앙인들로 하여금 참된 경건의 생활을 살도록 하는데 있다고 한데서도 잘 나타난다(Calvin, 제1권: 12). 따라서 개인적인 성경읽기와 기도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비롯되며,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아는 것을 목적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아 앎으로서 타자를 위한 사랑으로 이어지는 중생한 자의 구체적인 삶을 실현(Calvin, 제1권, 7: 4-5) 하기 위한 방편이 되어야 한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며, 겸손한 마음을 회복하게 함(Calvin, 제1권, 7: 5)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삶은 타인을 위한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즉 경건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깨달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기초하여 인간을 복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좇아 그들을 섬기고 돌보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렇다면 개인적인 기도생활과 성경읽기는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깨달아 더욱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자신의 삶속에서 구현하는데 의미가 있고, 참된 경건의 원동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지역사회복지(봉사)와 신앙인의 삶: 최근 전통적 가족개념과 가치관의 붕괴로 가족의 해체가 가속화되고 전통적 사회지지망의 역할을 담당했던 가족이 그 기능을 상실해 감에 따라 상호부조기능의 수행은 1차적으로 국가의 사회복지제도 개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고, 전문지역사회조직들이 개인, 집단, 이웃의 사회적 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사회복지실천을 통해 지역사회 지지와 보호역할을 담당(오정수·류진석, 2004)하는 상황에 있다. 주로 공공과 민간 사회복지 기관에 의해 주도되며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이 주로 그 대상으로 각종 회복·치료를 위한 개입서비스·교육·놀이 등 프로그램을 수행하거나, 때로 가정 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 지역사회보호를 담당하거나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장·단기적으로 거주하게 하는 사회적 보호 형태인 시설을 운영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교회주도로 1800년대에 자선방문형태로 지역사회복지가 시작되었고, 이후 기독교 민간사회복지 기관들이 전문적 사회사업을 실시하였으며(류상열, 2002), 우리나라에 선교를 시작하면서 1880년부터 고아원, 맹아원, 의료, 교육 등 포괄적인 사회복지사업과 계몽운동을 수행(김성이·유순도·이창희·김종인·김광빈·황옥경·김병삼·박현정, 2005: 123-124)하여 지역사회 사회지지망의 역할과 기능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사회 자원봉사 영역도 단순 봉사활동을 넘어 봉사의 대상으로 하여금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도움과 변화를 목적하는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고 있고(김동배, 2005: 247), 지역의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연대와 공동성을 일깨우는 공공 협력사업들이 진행되고(목회와 신학 편집부, 2010) 있다. 이와 같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자원봉사 참여자는 영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고(김성이외, 2005: 26), 교회 내 구성원들 간 지지와 교회 밖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Becker & Dhingra, 2001) 조사된다.

### III. 연구 방법

#### 1. 조사 대상

본 연구는 2001년 4월 수집된 미국장로교인의 삶 조사(U.S. Presbyterian Church Congregational Life Survey)를 사용하였다. U.S. Presbyterian Church Congregational Life Survey는 12,000 미국 장로교회를 대상으로 하되, 연구에 자발적인 참여의사 표시를 한 교회와 19,033명의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영성, 믿음, 교회활동, 지역사회 참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 등 4개 측면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였다. 본 연구는 U.S. Presbyterian Church Congregational Life Survey 데이터를 사용하되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변수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 2. 조사 도구

측정을 위하여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변수에 따른 구분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1> 측정방법

변수	구분
성별	1=여자, 2=남자
혼인관계	1=미혼, 2=초혼, 3=이혼 후 재혼, 4=사별 후 재혼 5=동거, 6=별거, 7=이혼, 8=사별
교육정도	1=고등학교, 2=전문자격과정, 3=전문대학, 4=대학, 5=석·박사
수입	1=\$10000 이하, 2=\$10000-24999, 3=\$25000-49999, 4=\$50000-74999, 5=\$75000-99999
예배참석횟수	1=이번이 처음 참석 2=매우 특별한 날에만 참석 3=한 달에 한번 이하 4=한 달에 한번 5=한 달에 두 번 6=거의 매주 7=한주에 한번이상
규칙적인 개인 경건생활	1=매일, 2=일주에 2-3번, 3=일주에 한번 4=때때로, 5=거의 참석안함, 6=전혀 참석하지 않음
규칙적인기도/성경공부모임 참여	1=하지 않음, 2=하고 있음

교제모임	1=하지 않음, 2=하고 있음
전도할 마음가짐	1=말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음 2=어느 정도 준비됨 3=아주 편하게 준비됨
현금	1=수입의 10%이상 2=수입의 5-9% 3=수입의 5%이하 4=거의 현금을 하지 않음
전도	1=절대 하지 않을 것, 2=아마 하지 않음, 3=할 것
이웃돕기 헌물참여	1=참여하지 않음, 2=참여함
직분	1=직분 없음, 2=직분 있음
지역의 교회관련행사	1=참여하지 않음, 2=규칙적으로 참여함

###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PASW STATISTICS 18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계 처리하였다.

첫째, 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독립변인들과 종속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교회관련 변인들이 사회봉사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항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 결과 및 해석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들의 59%(10,686명)는 여자였고, 41%(7,430명)가 남자였으며 평균나이는 53.42세였다. 혼인관계는 미혼이 1,933명(10.4%), 초혼이 10,491명(56.7%), 이혼 후 재혼 2,728명(14.7%), 사별 후 재혼 527명(2.8%), 동거 276명(1.5%), 별거 134명(0.7%), 이혼 1,061명(5.7%), 사별 1,358명(5.7%)이었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1,267명(6.9%), 전문자격과정 5,168명(29.0%), 전문대학 1,930명(10.5%), 대학 6,087명(33.0%), 석·박사 3,986명(21.6%)으로 나타났다. 수입정도는 \$10,000이하가 2,409명(13.4%), \$10,000-24,999 3,668명(21.8%), \$25,000-49,999 3,768명(22.4%), \$50,000-74,999 2,742명(16.3%), \$75,000+ 4,226명(25.1%)로 부유한 사람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예배참석 횟수에 있어 거의 매주 출석하는 사람이 12,507명(66.6%), 한주에 한번이상 출석하는 교인은 1,673명(8.9%)에 불과했다. 규칙적인 개인경건생활을 매일 하는 사람은 8,273명(44.5%)이었고, 규칙적인 기도·성경공부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이 26.8%(5,095명)으로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 교회

관련 교제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36.3%(6,912명)였고, 전도할 마음가짐이 되어있지 않을 사람이 18.1%였다. 수입의 10% 이상을 현금하는 사람들은 17.1%(3,059명)인데 비하여, 거의 현금을 하지 않은 사람도 비슷하게 19.9%(3,550명) 조사되었다. 이웃돕기 현물참여를 하는 사람은 19.8%(3,773명), 지역교회 관련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23.3%(4,435명)이었다.

<표 2> 일반적 특성 (N=19,033)

변수	구분	빈도	%
성별	여자	10,686	59.0
	남자	7,430	41.0
혼인관계	미혼	1,933	10.4
	초혼	10,491	56.7
	이혼 후 재혼	2,728	14.7
	사별 후 재혼	527	2.8
	동거	276	1.5
	별거	134	.7
	이혼	1,061	5.7
	사별	1,358	7.3
교육정도	고등학교	1,267	6.9
	전문자격과정	5,168	28.0
	전문대학	1,930	10.5
	대학	6,087	33.0
	석박사	3,986	21.6
수입	\$10,000 이하	2,409	13.4
	\$10,000-24999	3,668	21.8
	\$25,000-49999	3,768	22.4
	\$50,000-74999	2,742	16.3
	\$75,000 이상	4,226	25.1
예배참석횟수	이번이 처음 참석	501	2.7
	매우 특별한 날에만 참석	309	1.6
	한 달에 한번 이하	281	1.5
	한 달에 한번	432	2.3
	한 달에 두번	3,077	16.4
	한 달에 세번	12,507	66.6
	한주에 한번이상	1,673	8.9
규칙적인 개인 경건생활	매일	8,273	44.5
	일주에 2-3번	4,373	23.5
	일주에 한번	863	4.6
	때때로	3,456	18.6
	거의 참석안함	1,303	7.0
	전혀 참석하지 않음	319	1.7
규칙적인기도/성경공부모임 참여	하지 않음	13,938	73.2
	하고 있음	5,095	26.8
교제모임	하지 않음	12,121	63.7
	하고 있음	6,912	36.3
전도할 마음가짐	말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음	5,205	18.1
	어느 정도 준비됨	11,143	60.2
	아주 편하게 준비됨	2,151	11.6
현금	수입의 10%이상	3,059	17.1
	수입의 5-9%	6,224	34.8
	수입의 5%이하	5,028	28.2

	거의 헌금을 하지 않음	3,550	19.9
전도	전도하고 있지 않음	17,771	96.3
	거의 하지 않음	623	3.4
	하고 있음	66	.4
이웃돕기헌물참여	참여하지 않음	3,773	19.8
	참여함	15,256	80.2
직분	직분 없음	17,582	92.4
	직분 있음	1,451	7.6
지역의 교회관련행사	참여하지 않음	14,598	76.7
	규칙적으로 참여함	4,435	23.3
나이평균		53.42	

## 2. 지역사회봉사와 교회관련변인들의 상관관계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독립변인들과 종속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성별, 예배참석횟수, 전도할 마음가짐, 전도는 지역사회봉사와 부적관계를 가지며, 나이, 혼인관계, 교육정도, 수입, 개인경건생활, 기도/성경공부모임, 교제모임, 헌금, 이웃돕기 헌물참여, 직분, 지역에 교회관련행사는 지역사회봉사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일수록, 예배참석 횟수가 많을수록, 전도할 준비가 덜 되어있을수록, 전도하지 않을수록 지역사회봉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나이가 많을수록, 결혼하지 않을수록, 교육 정도가 높을수록, 수입이 많을수록 개인경건생활을 할수록, 기도/성경모임을 가질수록, 교제모임에 참여할수록, 헌금을 많이 할수록, 이웃돕기 헌물참여를 할수록, 직분을 가질수록, 지역에 교회관련행사에 참여할수록 지역사회봉사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 지역사회 봉사와 선택된 변수들 간 상관관계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015*	-.149**	.098**	.120**	-.006	.186**	-.091**	-.052**	-.098**	.015	.050**	-.030**	-.041**	-.033**	-.055**
2		.335**	.074**	-.161**	.108**	-.119**	.053**	.015*	-.017*	-.252**	-.024**	.188**	-.018*	.035**	.077**
3			-.036**	-.282**	0.001	-.111**	0.014	-.017*	.039**	-.064**	-0.003	.030**	-.023**	-0.003	0.014
3				.381**	-.001	-.017*	.072**	0.006	-.038**	-.083**	-0.007	.279**	.038**	.027**	.126**
4					-0.004	.077**	.019*	0.005	-.058**	-.024**	0.002	.228**	.016*	-0.001	.061**
5						-.128**	.264**	.279**	.119**	-.401**	-.139**	.048**	.130**	.200**	.037**
6							-.212**	-.074**	-.325**	.212**	.119**	-.101**	-.085**	-.090**	-.078**
7								.211**	.169**	-.275**	-.072**	.085**	.244**	.223**	.069**
8									.100**	-.213**	-.074**	.063**	.226**	.315**	.113**
9										-.175**	-.149**	.042**	.080**	.095**	.047**
10											.098**	-.168**	-.131**	-.178**	-.063**
11												-.049**	-.035**	-.065**	-.038**
12													.048**	.060**	.158**
13														.177**	.056**
14															.217**

\*=p<.05, \*\*=p<.01, \*\*\*p<.001

1=성별; 2=나이; 3=혼인관계; 4=교육정도; 5=수입; 6=예배참석횟수; 7=개인경건생활; 8=기도/성경공부모임; 9=교제모임; 10=전도할 마음가짐; 11=헌금; 12=전도; 13=이웃돕기헌물참여; 14=직분; 15=지역교회관련행사; 16=지역봉사

이러한 상관관계분석을 바탕으로 회귀가정의 위반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변인과 통제변인들 간의 VIF 계수를 검토한 결과 VIF 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분산팽창계수)가 1.046-1.374 범위 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중 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회귀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고).

<표 4> VIF 계수 분석

공차	VIF
성별	1.090
나이	1.274
혼인관계	1.235
교육정도	1.219
수입	1.323
예배참석횟수	1.318
개인경건생활	1.227
기도/성경공부모임	1.236
교제모임	1.224
전도할 마음가짐	1.179
헌금	1.374
전도	1.046
이웃돕기 헌물참여	1.149
직분	1.115
지역의 교회관련행사	1.160

### 3. 사회봉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다항로지스틱 분석

사회봉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항 로지스틱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인구통계학적 변수들 가운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는 성별, 나이, 혼인관계, 교육정도, 수입 모두가 포함되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사회봉사할 가능성이 27.3%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OR=.783,  $p<.001$ ). 이는 교회생활에서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여성의 봉사활동이 보다 왕성하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나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을 획득했으나 매우 근소한 영향력을 보였다(OR=1.012,  $p<.001$ ). 혼인관계는 초혼으로부터 사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회봉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는데, 미혼에 비하여 결혼하거나 재혼, 동거, 사별, 이혼한 경우 모두 사회봉사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초혼, OR=.550,  $p<.001$ ; 이혼 후 재혼, OR=.531,  $p<.001$ ; 사별 후 재혼, OR=.621,  $p<.001$ ; 동거, OR=.501,  $p<.001$ ; 별거, OR=.415,



p<.001; 이혼, OR=.612, p<.001; 사별, OR=.644, p<.001).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전 청년기 시절에 다양한 수준의 사회봉사에 참여하나 결혼 이후 가족중심의 생활에 전념하게 되고, 선행연구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별거·이혼·사별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 사회봉사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교육수준과 관련하여 석·박사 등 최고학력 졸업자에 비하여 낮은 학력을 가진 그룹에서 사회봉사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학, OR=.571, p<.001; 전문대학, OR=.506, p<.001, 전문자격과정, OR=.509, p<.001; 고등학교, OR=.665, p<.001). 이와 달리 재정여력이 탁월한 그룹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빈곤상태에 있는 그룹이 사회봉사 수준이 1.321배 높게 나타났다(\$10,000 이하, OR=.1321, p<.05).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이 사회봉사에 참여하는 것은 고학력일수록 사회참여에 대한 교육기회를 더 많이 가지기 때문에 그럴 것 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빈곤상태에 있는 그룹이 부유한 그룹에 비하여 사회봉사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절대빈곤의 상태는 결코 지역사회 봉사 참여의 기회를 가능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중산층에 비하여 빈곤층의 사회봉사가 더 높다는 것이 아니라 부유층에 비하여 빈곤층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이 약간의 단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빈곤층이 중산층에 비하여 사회봉사를 많이 하지는 않지만 최상층 그룹에 비하여는 빈곤층의 참여율이 보다 높은 것이다. 어려운 생활가운데서도 신앙의 바른 교육에 기반하여 지역사회봉사에 기여하는 모습을 읽을 수 있다.

예배참석 횟수가 높을수록 지역사회봉사가 줄어드는 결과는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OR=.939, p<.001).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사랑은 함께 이루어져야 하지만 여기에서는 예배참석 횟수와 지역사회봉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예배참석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만큼 지역에 대한 봉사의 중요성이 강론되어지지 않은데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개인경건생활을 많이 할수록 지역사회봉사 참여율이 줄어드는 경향과도 일치된 모습을 보인다(OR=.946, p<.001). 개인경건생활이 깊을수록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높게 나타나야 되나 이 역시 개인경건생활의 중요성만큼 이웃에 대한 봉사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사실이 일부 소홀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 또한 추론해 볼 수 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제, 이웃돕기 현물참여, 지역의 교회관련 행사가 지역사회봉사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해 본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제, OR=1.264, p<.001; 이웃돕기 현물참여, OR=2.038, p<.001; 지역 교회관련 행사참여, OR=2.487, p<.001). 이것은 교회의 사회적 교제, 이웃을 돕기 위한 현물 참여, 지역의 교회관련 행사의 잦은 참여는 이웃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실제 참여를 도모한다는 기존의 연구를 통하여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 지역사회 봉사에 미치는 영향변수

	B	S.E.	Exp(B)	EXP(B)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성별	-.245	.038	.783***	.727	.843
나이	.011	.001	1.012***	1.009	1.014
혼인관계					
초혼	-.598	.084	.550***	.466	.649
이혼 후 재혼	-.632	.093	.531***	.442	.638
사별 후 재혼	-.477	.138	.621***	.474	.813
동거	-.692	.168	.501***	.360	.696
별거	-.880	.235	.415***	.262	.657
이혼	-.491	.106	.612***	.498	.753
사별	-.441	.112	.644***	.517	.801
교육정도					
대학	-.560	.106	.571***	.464	.702
전문대학	-.681	.056	.506***	.453	.565
전문자격과정	-.676	.095	.509***	.422	.613
고등학교	-.408	.066	.665***	.584	.757
수입					
\$75000-99999	-.003	.115	.997	.796	1.248
\$50000-74999	.006	.106	1.006	.817	1.239
\$25000-49999	.054	.108	1.056	.854	1.304
\$10000-24999	.191	.111	1.210	.974	1.504
\$10000 이하	.278	.109	1.321*	1.066	1.635
예배참석횟수	-.063	.020	.939***	.903	.976
개인경건생활	-.056	.014	.946***	.920	.972
기도/성경공부모임	-.062	.043	.940	.864	1.022
교제모임	.234	.040	1.264***	1.170	1.366
전도할 마음가짐					
어느 정도 준비됨	-.359	.293	.699	.393	1.240
거의 준비 안 됨	-.216	.080	.805**	.689	.941
현금					
수입의 5%이하	.059	.052	1.061	.958	1.174
수입의 5-9%	.069	.056	1.071	.960	1.194
수입의 10%이상	.077	.071	1.080	.939	1.243
전도					
거의 하지 않음	-.232	.111	.793	.638	.985
전도하고 있음	-.135	.364	.874	.428	1.784
이웃돕기 현물참여	.712	.058	2.038***	1.818	2.284
직분	.037	.065	1.038	.914	1.179
지역의 교회관련행사	.911	.042	2.487***	2.289	2.702
상수항	-.365	.192	.694		

$\chi^2 = 1446.961$  for 35

\*=p<.05, \*\*=p<.01, \*\*\*p<.001

## V. 결론 및 논의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교회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윤리적인 모습을 견지해 주기를 바라고, 지역의 다양한 사회 복지적 문제들을 해소하는데 교회에 역할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는 반면에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쉽사리 높아지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하여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회 일각에서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이 여전한 것에 대하여 전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왜곡된 관점에서 비롯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역주민들에게 부정적 시각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에서 신뢰할만하게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해내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일정부분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만한 노력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교회는 복음의 선포와 함께 다양한 교회활동을 통하여 선포하는 복음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교회관련 변인들이 지역사회 봉사에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봄으로 인구사회통계학적 측면과 함께 교회 안 밖의 구체적 활동들이 실제 지역사회 봉사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여 장로교회가 복음 선포와 함께 개선되어야 하는 이웃사랑의 실천을 위하여 개선해야할 근거요소들을 찾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일반적 특성 분석에서 미국 장로교회 교인들의 예배 참석 횟수(한 달에 3회 이상 75.5%)와 규칙적인 개인 경건생활(매일, 44.5%)의 빈도는 높지만 규칙적인 기도/성경공부 모임참여(26.3%), 교제모임(26.8%), 그리고 십일조 현금 참여(17.1%) 등 헌신을 필요로 하는 교회 내 활동은 비교적 낮은 참여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위 주일만 참석 신앙인이 많아지는 교회의 시류를 반영하며, 교회생활의 역동성을 경험할 수 있는 그룹모임 참여하여 익명성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기성교회 교인들의 부정적 속성을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이 전도할 마음가짐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84.4%), 실제로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0.4%에 불과한 것도 위의 상황에 따른 분석을 어느 정도 지지하는 증거들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사회봉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통하여 인구통계학적 변인들 중 성별, 혼인관계, 학력, 수입 등이 영향력을 나타냈는데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가정생활이 안정적인 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한 사람들보다 절대빈곤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봉사를 더 많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먼저 교회 참석 비율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들이 봉사참여율이 높아지는데 이것은 한국의 상황과도 비슷하게 다수인 여성이 봉사자로 나서는 일반적 형태(Krause, 2006)를 보여줌과 동시에 남성으로 하여금 봉사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학력이 높을수록 지역사회 봉사를 더 많이 하는 것은 교육기회가 많아 질수록 시민권의 책임에 대한 인지기회를 더 많이 가질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과 함께 봉사가 더 불어 병행되는 일이 가능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절대 빈곤에 있는 사람들이 부한 사람

들보다 더 봉사를 많이 참여한다(Monaghan, 1967)는 사실은 부한 사람들에게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의 중요성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각인시켜 준다.

한편, 이혼, 사별을 경험하고 있는 가족들의 경우 본인들의 정서적·어려움들로 인하여 지역사회 봉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은 이해가 가능하나 소외상황을 경험할수록 스스로 소외상황으로 더욱 몰아가지 않도록 교우들의 지지가 필요하고, 공동체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동인들을 찾는 것이 유익할 것이기 때문에 사회봉사와 같은 모임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셋째, 예배 참석 횟수와 개인경건생활 빈도가 높을수록 사회봉사 참여율이 낮아지는 분석결과는 신앙생활이 생활의 모범으로 드러나야 하는 측면이 교회생활에서 덜 강조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교회생활은 가장 많이 참여하는 공 예배참석을 통하여 교육을 받는다고 이해할 수 있으므로 높은 예배참여와 개인경건생활이 오히려 지역사회봉사 참여를 낮추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그것은 예배에서 이웃에 대한 봉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수준이 낮거나 빈도가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개혁주의에 기반하는 성경적 가르침은 신자의 교회 중심 한 생활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으므로 교회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봉사의 의미와 실천력 있는 삶을 가르치고 생활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마지막으로 사회봉사와 관련이 있는 이웃을 돕기 위한 현물기부 참여나 지역의 교회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지역사회 봉사 가능성을 높이는데 유의미한 영향력(Becker & Dhingra, 2001)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이웃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만남이 증대될수록 이웃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자발적인 봉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의 연구(김정아·김수연, 2006; 정태연·박준성·박은미, 2008)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장애인 가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장애 관련 봉사경험, 혹은 직무경험이 있는 사람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지고 장애인을 위한 봉사에 적극성을 띠는 것과 같은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볼 때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 봉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은 이웃을 돕기 위한 현물기부 참여, 지역의 교회관련 행사와 같이 예상 가능한 변인들도 있으나 예배참여와 개인경건생활과 같이 개별 신앙생활이 이웃을 위한 봉사에 반드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공예배 참여 및 개인경건생활의 중요성과 함께 이웃사랑의 실천력을 증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함의를 나타냈다. 또한 결혼지위 불안정에서 비롯된 소외경험이나 절대적인 부가 이웃에 대한 봉사참여를 결여시킬 수 있으므로 이 그룹을 위한 특별한 관심과 독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연구를 위하여 제언하면, 본 연구는 미국 장로교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교회에 일반화할 수 없고 미국 장로 교인에게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다. 일반적 특성의 일부도 한국적 상황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한국 교회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실시하여 사회봉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을 탐색해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역사회봉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교회관련 변수들의 영향력을 파악함으로써 선행연구들이 봉사에 대한 이론적 분석에 그쳐 실증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을 규명하고 추론하였다는데 의미를 가진다. 또한 지역사회에 대한 교회의 봉사참여에 미치는 각각의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교회교육에서 강조될 필요가 있는 내용들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갖는 의미는 크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고경환. (2006). “한국종교계의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실태분석”. 『보건복지포럼』. 65-73.
- 김동배. (2005).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서울: 학지사.
- 김병연. (2009). “2009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결과.”  
[http://trusti.kr/2008/bbs/board.php?bo\\_table=CTN\\_pds&wr\\_id=30](http://trusti.kr/2008/bbs/board.php?bo_table=CTN_pds&wr_id=30)
- 김성이·유순도·이창희·김종인·김광빈·황옥경·김병삼·박현정. (2005). 『교회사회복지의 철학과 방법』. 서울: 나눔의 집.
- 김정아·김수연. (2006). “장애이해교육 내용을 삽입한 교과 수업이 장애아동에 대한 일반아동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초등교육연구』 19(2), 173-192.
- 목회와 신학 편집부. (2010). 『기독교와 사회봉사 총론』.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 류상열. (2004). 『사회복지역사』. 서울: 학지사.
- 보건복지부. (2008). 『2008년 사회복지 자원봉사 통계』.
- 오정수·류진석. (2004). 『지역사회복지론』. 서울: 학지사.
- 정태연·박준성·박은미. (2008). “초·중·고·대학생 간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서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5(3), 371-388.
- Becker, P. E. & Dhingra, P. H. (2001). “Religious Involvement and Volunteering: Implications for Civil Society, *Sociology of Religion*.” 62(3), 315-335.
- Calvin, J. (2004).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기독교강요』. 원광연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 Krause, K. (2006). “Exploring Race and Sex Differences in Church Involvement During Late Life.” *The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76(2), 127-144.
- Luther's Works[LW](1955-86). 55 Volumes. Edited by Jaroslav Pelikan, Hilton C. Oswald and Helmut T. Lehmann. Sain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 Lindberg, Carter. (1996). *The European Reformations*, Cambridge, MA: Blackwell Publisher.
- Monaghan, R. R. (1967). *Three Faces Of The True Believer: Motivations for Attending a Fundamentalist Church*,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6(2), 236-245.
- Olson, J. (1989). *Calvin and Social Welfare*, Selingsrove.. Selsquehanna University Press.
- Ozment, Steven. (1980). *The Age of Reform: 1250-1550*,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